

장흥군, 특산자원 활용 신제품 개발 잇따라

동백·편백으로 천연화장품 원료 개발
'황칠한우 장조림'도 4년만에 첫 선
한우·키조개·표고버섯 넣은
'한우삼합떡갈비' 출시 예정



장흥군이 지역 특산자원인 한우와 황칠을 결합한 '황칠한우 장조림'을 4년여 연구개발 끝에 지난 10일 첫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동백·한우 등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에 소재한 (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유나이티드엑티브가 화장품 천연오일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나이티드엑티브는 경피약품전달체계(TDS) 및 발효유화제 등 화장품 소재로 사용되는 첨단 특허기술을 보유한 연구중심 기업으로, 미생물 발효 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를 공동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유나이티드엑티브는 효과가 뛰어난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해 ▲

프리미엄급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개발 ▲연구장비, 정보교류 및 연구 활동 지원 ▲업주 부담, 지식재산권, 공동개발경비 등 프로젝트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흥군과 전남도, 유나이티드엑티브는 지역 특

산자원인 동백·편백·유채 등을 활용해 프리미엄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대량 생산을 본격화 했다. 장흥군은 또 지난 10일 '황칠한우 장조림'을 첫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장흥군 제공>

'황칠한우 장조림'은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한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장흥한우 용·복합 산업화사업단과 전문가 그룹이 수차례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한우'와 지역의 특산물인 '황칠'을 결합해 장조림을 만들었다. '황칠한우 장조림'은 국내산 한우로 만드는 반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 장조림은 대부분 수입산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황칠한우 장조림'은 남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는 황칠나무에서 추출한 황칠진액과 국내산 한우를 조합해서 만든 건강식품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황칠한우 장조림은 장흥군한우협회와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판매된다. 장흥군은 앞으로 장흥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 등 삼합을 활용한 '한우삼합떡갈비'도 출시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황칠한우 장조림이 사랑받는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해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의 '화요초대석'이 문체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부터 국비로 진행된다.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운영 '화요초대석' 전액 국비 지원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개발·운영 중인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 (약칭 화요초대석)이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00여개 문학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0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시문학파기념관의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이 지역 맞춤형 우수 문화콘텐츠로 평가돼 국비 800만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비로 운영하던 '화요초대석'은 오는 6월부터 전액 국비로 진행하게 됐다. 시문학파기념관 개관과 함께 지난 2012년 4월부터 8년째 78회 열린 '화요초대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밤 7시 진행되는 문화예술 토크콘서트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애인고용공단·나무에그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지사장 임창규)는 최근 나무에그림주식회사(대표 김해룡)와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 약정으로 공단과 나무에그림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선정해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13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본격화



삼호읍 일원 사업비 30억 투입
개별·공동주택·공공상업 건물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영암군은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별·공동주택·공공상업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 도비 3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올해 삼호읍 일원 338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컨소시엄 구성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281개소에 1214kW, 태양열 57개소에 342㎡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 사업을 착공, 오는 12월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등을 중심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부 공모에 대비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선정해 오는 5월 29일까지 신



영암지역 농촌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청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재생에

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전기료 절감 효과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멸꿀나무 등 천연 의약품 재료 장흥군, 품질 표준화 구축사업

장흥군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 천연재료 품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을 편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흥바이오산단에 지방비(도비 50억 원, 국비 50억 원) 100억 원을 들여 천연물 원재료 표준화 기반구축 시설을 착공했다. <조감도> 이 시설은 연면적 1982㎡, 지상 2층 규모이며, 세척과 건조시설, 표준화 장비 등이 들어선다. 올해 완공해 내년부터 가동한다. 장흥 주민들은 눈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간초기(약초의 일종)와 간과 관절에 효능이 있는 멸꿀나무 등을 제약회사와 계약을 하고 재배 중이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 수분 함량이나 잔류 성분이 일정치 않아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준화 기반구축 시설이 가동되면 표고버섯을 비롯한 약재의 성분을 농산물 품질기준(GAP)과 의약품원료품질기준(GMP)에 맞게 표준화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